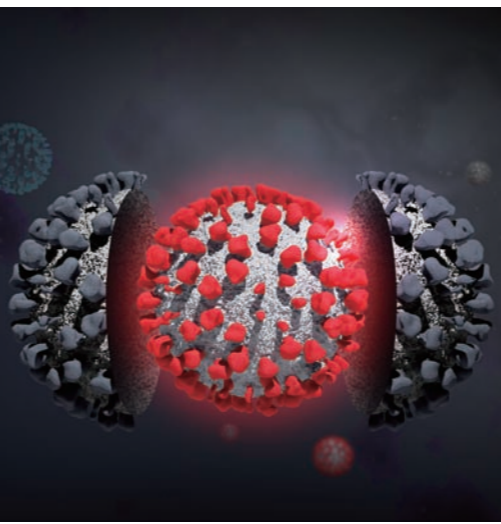


오미크론 변이에 주식시장 흔들... 코스피 2900선 위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이 출현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마저 급락하면서 회복세로 접어든 글로벌 경제가 다시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코스피가 28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2900선이 무너진 2890.78로 시작했다가 11시 13분 현재 0.42% 떨어진 2924.20에 거래 중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왼쪽)과 변이 바이러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왼쪽)과 변이 바이러스.

“백신 효과 확인까지 2주간 변동성 노출돼”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2900선이 무너진 2890.78로 시작했다가 11시 13분 현재 0.42% 떨어진 2924.20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7455억원을 팔아치우고 외국인도 기관이 각각 261억원, 7457억원 사들이는 중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도 개인의 순매도 행진에 힘입어 0.50% 하락한 1000.91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2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905.04p(2.53%) 급락한 3만4899.3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2.27%, 2.23%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그밖에 유로스톡스50지수(-4.74%), 일본 닛케이225지수(-2.53%), 홍콩 항셱지수(-2.67%), 등도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오미크론에 따라 향후 2주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미크론은 여태 발견된 변이 및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스

증권업계 “내달 코스피 2800 안팎 예상... 백신 효능이 관건”

파이프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어 이전의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 면역과 이미 출시된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면역 반응을 모두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각 국가별 선제적으로 국경 폐쇄 및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기 회복세는 둔화될 수 있지만 경기정상화에 따른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종료 및 조기 금리인상 우려는 완화될 것이다”며 “오미크론의 재감염성 여부를 파악하려면 2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가능성, 거리두기 정책의 강화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는 백신 효과성 데이터 확인까지 금융시장은 변동성 확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한

국 주식시장 하이일드 등급 회사채 등 안정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자산이 취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로 2750~3000을 제시했다. 노동길 신한금투 연구원은 “델타 변이 확산 국면에서 조정을 보였으나 백신 효과성 입증 후 반등한 바 있다”며 “세계 주식시장은 백신 효과성 데이터 확인까지 걸릴 2주간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한금투에 따르면 델타 변이 확산 시기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 지역 주가는 고점 대비 6.7% 하락했다. 이를 감안하면 오미크론 확산 국면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으로 예상된다. 노 연구원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라 통화와 재정정책 강도를 완화시키고 있는

국면이어서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면서 “신흥국 주식시장, 하이일드 등급 회사채 등 안정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자산이 특히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다”고 말했다.

“충격 장기화되지 않을 것”... 12월 코스피 2900선 지지 여부 엇갈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현재보다 후퇴할 것이라 우려적인 전망이 나온다. 하나금융투자(하나금투)는 12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로 2810~3080을 제시했다. 이재만 하나금투 연구원은 “작년 9월 영국, 10월 인도, 12월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등장 시 코스피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각각 7%, 6% 하락했고 12월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에 주는 악영향이 학습효과로 인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미국 긴축 우려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

지만 코스피 2900선 지지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금리 상승세가 주춤할 때 양호한 국내 제약, 게임,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들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우선적으로 여행·항공 등 국경을 넘어야 하는 산업들은 힘들어 보인다. 성장 기대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금리와 동행성이 높은 섹터에 접근도 어렵다”며 “내년까진 한국은 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유호하지만 당장 오미크론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등 금리와 역의 관계가 높으면서 경기에 덜 민감한 업종들이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면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일부 테마 열풍에 치우친 측면이 있긴 하나 네이바·카카오킴즈 주가를 보면 금리 상승 국면에서 부진한 반면 금리가 하락하거나 안정적일 때 강했다”며 인터넷·게임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오미크론 확산이 증시에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나 코로나 대응행 초기인 작년 3월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키움증권은 연말까지 코스피가 2900선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관련 데이터 미확보라는 단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2900선을 하회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변동 코로나가 블랙스완급 악재라 보기 어려우므로 2900선 하회 시 분할 매수 대응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작년 3월 팬데믹 당시 봉쇄조치로 인해 연구적인 경제 손실 위험에 직면했던

달릴까 말까 (11.29 공시)

- ▶ 삼성엔지니어링[028050]= 3342억원 규모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IP3 PUTJ 154kW 골조공사 수주
- ▶ 한라[014790]= 전북 군산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2353억원 규모 공사 2건 수주
-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 1622억원 규모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
- ▶ DL건설[001880]= 1350억원 규모 충북 제천 장락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 ▶ 광진원텍[090150]= 발전사업 업체 이월 주식 180만주 90억원에 취득
- ▶ 티에스아이[277800]= 62억원 규모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산업 1-4 B/L 토지 취득
- ▶ 알에스오메이선[140670]= 21억원 규모 제3차배정 유상증자 결정
- ▶ 에이치엘비[028300]= 에프에이 흡수합병 이사회 승인
- ▶ 나인테크[267320]= 수원 고색 3산 입단지에 44억원 규모 신규 시설 투자

점을 고려하면 각국 정부가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며 “또한 화이자에서도 신규 변이 대응 백신을 6주 이내 개발할 수 있으며 100일 이내에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점에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시장 충격은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3분기 기관 해외투자 3856억달러... ‘사상 최대’ 또 경신

2분기보다 55억달러 늘어... 주식 1681억달러·채권 1806억달러

올해 3분기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가 사상최대를 다시 경신했다. 다만 주요국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2분기보다 증가폭은 축소됐다. 한국은행(한은)이 29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3856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6월말보다 55억달러(1.4%) 증가한 규모로 2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투자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 투자잔액이 49억달러 증가하며 2547억 달러로 집계됐고, 외국환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10억달러, 3억달러 늘어나며 293억달러와 185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보험사의 투자잔액은 6억달러 줄어든 831억달러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해외 주식에서 2분기보다 51억달러 늘어난 1681억달러, 외국 채권에서

8억달러 늘어난 180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3분기 들어 투자액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주요국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3분기 중 주요국의 주가는 대체로 2분기보다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1.9%와 -0.4%, EU(유럽연합)는 -0.4%, 홍콩은 -14.8%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주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올해 3분기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규모가 사상최대를 다시 경신했다.

식에 투자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긴 결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외화

증권투자가 증가했다”면서 “반면 미국 등 주요국 주가 하락, 미국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인 코리아 페이퍼(Korean Paper)는 5억달러 감소한 369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코리아페이퍼에 대한 스프레드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 증권사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에 나서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원석 기자**

대한민국 으랏차차

칙

캠코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 도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 안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 창출!**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힘 모아 돕겠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